

학교 첫 토요일 휴업 알차게 보내요

포천중고 주5일수업제 자율적 학생참여 돋보여



영농학생회 학생들이 주5일 수업제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영농학생경진대회를 대비,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가 지난 28일부터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 1회씩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의 초·중·고교도 주5일수업제에 동참, 각 학교별 특성에 맞게 자율학습 및 수련회를 실시하는 등 운영계획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는 포천종합고

등학교(교장 이광호, 이하 포천중고)를 찾았다.

포천중고는 연간 8일을 휴업운영 일수로 정하고 ▶풍물반, 관악반, 오고무반 등 동아리활동 ▶기능 및 자격증 취득 지도를 위한 전산실 개방 ▶영농코스 실습, 도서실개방, 운동장개방 등 학교전역을 개방하고 자율적인 학생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등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

교홈페이지를 활용한 가정학습 ▶개인 또는 모둠별 체험학습을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첫날 포천중고는 컴퓨터 경진반, 관악반, 영농학생경진대회 준비반 등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주5일제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포천중고는 ▶수업시수 확보 ▶맞벌이부부나 소외계층 자녀 등 보호 문제 ▶사교육비 증가 우려 ▶학력저하 우려 ▶생활지도상 어려움 발생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포천중고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각종방안을 연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과 교사 손경호씨는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수업의 열의가 여는 수업보다도 뜨겁다"며 "학생들의 열정에 교사를 역시 토요일수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학교는 주5일제의 전면시행에 대비, 학생들의 효율적인 시간활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청소년상담센터 '꿈과 용기' 발행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달 28일 '꿈과 용기' 2004 겨울호



꿈과 용기 2004 겨울호.

이번호에는 ▶관두언에 최태중 포천시의회 의장의 "가장 훌륭한 빛은 가장 좋은 책이다"가 수록돼 있으며 ▶김영진 상담센터소장/경북대학 교수의 상담 칼럼 '시험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교장 학교탐방에 관한 인고등학교 ▶청소년 창의력 캠프와 ▶2004년 하반기사업 결산 ▶2005년도 사업계획 ▶청소년 글마당-한류열풍,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동남고 1년 최지혜)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발행하는 '꿈과 용기'는 연중 여름호와 겨울호 두 번에 걸쳐 발행되며 청소년상담센터의 활동내역 보고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한편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에 의거 지난달 10일 '포천시청소년상담실'에서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혜배 94spice@hanmail.net

과학영재교육원 입학과 나의 꿈



김수정 포천신문 학생명예기자 갈월중학교 1년

작년 12월 포천신문을 통해 과학영재교육원 기초 중등부가 대전대학교에 신설, 운영된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별 관심과 의미가 생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평소 내가 수학·과학에 특별한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욱이 나 자신이 영재라고 평소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라는 것 뿐, 그리고 난 이공계 쪽 보다는 어슴푸레 인문계열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 분들과 어머니의 영재교육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도움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시험 요강은 1·2차 필기, 3차 집중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실력 테스트를 겸해 평소 궁금해하던 영재들이 보는 시험이라 하니 궁금하기도 했다. 또 면접이라면 내 전공(?)이라 자신 있었다.

시험보는 날, 떨리는 가슴을 안고 시험을 봤다. 학교나 학원 문제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수학·과학의 고난이도의 11문제를 2시간30분 안에 해결해야 했다. 단순히 그치지않는 나는 머리를 쥐어 짜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 나갔다.

먼저 무엇이 과학의 시대라는 지 모를 것이다. 진정으로는 과학의 시대라 이끌고자 한다면 어려서부터 과학도서를 싸고 쉽게 접할 수 있게 권장해 주고 과학에 대한 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선 친근감을 쌓아야 한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또한 시험을 외워 평가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있는 문제를 제시해 친구들과 토론하고 생각하고 직접 실험과 책을 통해 공부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과학시험이 이루어 질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드디어 3월 19일 기다리던 입학식이 있었다. 부푼 가슴을 누르며 입학식이 시작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존경과 꿈의 대상인 총장님, 과학원장님, 과학고등학교 교장·교감선생님, 대전대 이공계박사 교수님 등 또 뭉치만 해도 반쪽 반쪽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여러 박사님들 영재교육의 1인자 조석희 박사님 등이 그 크고 넓은 단상에 자리하고 있어 난생처음 최고의 자리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기쁨과 자긍심에 내 눈은 확 밝아졌으며, 머리는 번쩍 깨고 가슴은 터질 듯한 그 무엇인가가 요동치는 듯 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영재랄 수 없지만 영재는 길러지는 거라고 했

“생명공학 박사가 되어 인류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문제 중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여자와 남자로 나뉘게 되는 까닭을 적으라고 해서 공리 끝에 아빠의 정자 속에 여자의 성격을 띤 것이 있어서라고 적었다.

집에 오면서 엄청나게 궁금하여 도착하자마자 책을 뒤졌고, 드디어 답을 찾았다. 정자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 그 밖의 상식도 많이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영재라는 그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영재가 그냥 영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영재란 어떤 문제나 궁금증이 생기면 해결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아 스스로 알아가며 학습하여 수준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닐까? 아직 어린 내가 이런 의견을 가져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시험을 보고 과학에 관한 독서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읽는 책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터넷 연예소설을 본다. 물론 나 또한 연예소설을 좋아 하지만 독자적 허황된 꿈을 갖게 하고 가상인물에 게 열매여 헤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가끔씩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때가 있다. 항상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하면 서도 방법과 방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

어, 나도 영재로 클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시스템을 따라 하나의 소홀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자리에 초빙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 길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도 난 꼭 해야 할 거야. 난 생명과 학생이니 생명공학 박사가 되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생명박사가 되자.

지금부터 생명공학은 나의 길을 가슴에 새기며 하늘을 바라본다. 내 연구 논문이 저 하늘을 활활 날아가기를... 우리나라 생명공학이란 빛이 전세계에 퍼지기를...

2005년 3월 20일 pretty7013@naver.com



지난 19일 대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제1회 입학식에서 갈월중 1학년 김수정 학생이 재원생 대전대 과학영재교육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23)

어머니의 보물

평소 대나무 젓가락으로 진지를 잡는 부모님께 양은 젓가락을 드리면 그것도 효도란 생각이 들었지요.

"이거 봐라! 옛날 돈이랑 바꾼 거다."

"야, 그 젓가락 되게 좋다."

아이들은 부러워했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나는 젓가락을 받아 들고 의기양양 하였습니다.

팽거머가 지고 일하고 들에서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를 보자 우리들은 배고픔에 못 이겨 차라리 엄마를 뜯어 먹을 것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고구마 삶아줄게 기다려라."

"엄마, 제가 볼 땀개요."

만인 나는 도와드린다고 아궁이에 달 마른 짚을 넣어가며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수한 고구마 탄내가 나와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주섬주섬 불을 아궁이 깊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볼, 그만 때려!"

하시며 엄마는 슬뚂경을 열었습니다.

김이 천장으로 솟아오르며 맛있는 냄새가 올라옵니다.

엄마는 대꼬챙이로 고구마를 속속 찢어 꺼내시고 양은 짚반에 담아 쪽마루에 걸터앉으셨습니다.

둘째 동생은 벌써 어두워져 영양실조로 인한 야맹증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의 야맹증을 걱정하시며 쥐를 잡아 구어 먹었습니다.

야맹증은 단백질 부족으로 걸리는 일종의 영양실조지요.

여동생은 계집아이임에도 머리를 가위로 송덩 송덩 깎아 주어 뺨뺨머리입니다.

막내 동생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않은 까닭에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나 있어 여름에도 털실로 짠 모자를 쓰고 있지요.

반찬이라고는 하나리 고춧가루가 몇 개 뿜은 배추짚자 한 가지 뿐입니다.

남은 한 보리밥은 아버지 드리고 호야 불 아래서 먹는 우리들의 그날 저녁 끼니는 삶은 고구마지만 생크림 케이크보다, 오색경단의 꿀떡보다 맛이 있습니다.

받고구마를 두어 입 베어 물던 나는 낮에 옛날 돈과 바꾼 양은 젓가락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내 방으로 들어가 옛날 돈이 있던 그 자리에 숨겨둔 양은 젓가락 두 매를 의기양양하고 보루도 당당하게 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한 매는 아버지께, 다른 한 매는 엄마께 드리면서 백점 맞은 시험지를 드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씀 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이거 낮에 옛날 돈 장사가 지나갈 때 바꾼 거다."

어머니는 심상치 않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무엇으로? 고를 주워서?"

"아니요. 장롱에 있는 옛날 돈과 바꿨어요. 그 돈은 산 돈인데 아저씨가 그냥 인심 써서 바꿔 준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울먹이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서들 먹어라."

먹는 아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셨지만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밥상을 물리시고 엄마는 나를 호롱불을 들고 들어오시며 방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아야, 그것은 엄마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다. 만약에 엄마가 너의 팬이나 딱지를 함부로 없앤다면 기분이 어떻겠니? 남의 물건을 만질 때에는 꼭 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란다. 엄마는 그 걸 팔아서 네 다우다 잡바를 사주려고 그랬단다."

호피게 아담맛을 즐 알았지만 엄마는 야단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잊지 못하고 울먹이셨습니다.

돈은 없고 어떻게든 자식의 옷을 사주려고 하신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건강관리 방문, 유선면담 및 정보제공안내

목 적

- 건강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의식 고취
-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 자기책임의식고취
- 개인별 합당한 생활습관지침서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 적기치료유도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및 보험정보보호

대 상 (건강검진사후관리대상)

- 검진결과사후관리대상(질환의심자, 건강주의자, 유질환자)
 - ▶ 질환의심자
 - 1차검진결과 질환의심자 및 암검진결과이상소견자정보제공(팝플렛, 소책자 우표 우편발송)
 - ▶ 건강주의자
 - 검진종합판정결과 건강주의자 (생활습관개선지침서(흡연, 음주, 운동) 발송, 유선 및 방문면담계도)

유질환자

검진종합판정결과유질환자 (질환별건강문고우편발송, 유선 및 방문면담계도)

건강문고제공

-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폐결핵 및 흉부질환, 운동요법, 식이요법 소책자

건강관련정보제공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문의 : 전국 어디에서나 ☎1588-1125